

#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 가치 인정받아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 지정...3년간 15억 지원 보존·전승사업 추진



넓은 농경지의 불리한 농업환경 여건을 수백 년 동안 슬기롭게 극복한 강진지역의 농업유산이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아 재조명되고 있다.

강진군은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지정 확정됐다고 5월 28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 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하고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15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은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현장조사와 발표심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전국에서 신청한 6개 후보 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곳은 1417년 병영성 이설과 하천부족으로 인해 간척지를 제외하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농경지 한들평야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경지 곳곳에 연방죽을 축조해 물을 저장·보관하고 재사용하여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작과 마늘, 양파 등 이모작 농업환경을 조성했다.

수인산 흙골에서 시작해 병영면 소재지로 흐르는 병영천에 수백 개의 보를 설치해 마을로 물을 공급해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흘러간 물은 병영성 해자로 유입되어 농업용

수와 군사용으로도 활용하고, 인근 연방죽으로 흘러가 다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이중·삼중의 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재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

또, 병영면·작천면의 5개 연방죽(하고제, 중고제, 옹동제, 돌아제, 옹동제)은 물 부족 시 수로를 통해 상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농번기가 끝나면 불어, 잉어, 가물치 등 민물고기를 잡아 잔치를 열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문화인 '가래치기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강진군은 연방죽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농촌자원 보전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예부터 전해 온 강진군의 우수한 농업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세계관개시설유산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근 사직인 전라병영성, 한글목 돌담길, 하멜촌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찾아가는 귀농어촌 현장상담 실시

### 예약제 현장상담 실시로 전입 초기 어려움 해소 기대

장흥군은 도시민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귀농어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장흥군에 따르면 전입 초기 귀농어촌 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상담의 어려움 때문에 전화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전달 및 상호 이해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정책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약제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 대상은 장흥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어촌인이며, 도시민지원센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서면으로 예약하면 된다.

군은 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해 일정을 협의하고 현장상담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통해 상담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귀농어촌 성공요인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안



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상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도시민지원센터(☎ 061-860-5952~4)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 "마법숲으로 떠나는 상상 여행"

### 해남군, 열려라 마법숲 전시회 오늘부터 30일까지 개최

해남군은 '열려라 마법숲' 전시회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및 로비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숲을 소재로 이주은, 기미노 글렌다 스브렐린, 루이자 지아 말루, 파트리시아 도나에라 작가의 현대 예술 작품과 동화 그림 5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회에 참여한 기미노 작가와 이주은 작가는 숲이 가진 따뜻함과 호기심, 그리고 잊혀져가고는 있지만 절대 버려질 수 없는 숲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국외작가로는 볼로냐 북페어 수상 작가인 글렌다 스브렐린과 루이자 지아 말루 작가, 파트리시아 도나에라 작가의 동화 그림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나만의 마법숲 만들기 체험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며, 작품 및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회의 입장은 무료이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최된다.

군 관계자는 "숲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하고 즐거움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 도입...일손 부족 농촌 숨통

### 법무부에서 35명 배정...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 가능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5월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의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 제도에 따라 35명을 배정받았다.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군은 최근 농가 신청을 접수 받아 35명을 법무부에 신청해 전원 배정 받았으며,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하다.

한시적 계절 근로자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격리조치 이후 농

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는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한시적 외국인 인력뿐 아니라 영농 대행 서비스, 농기계 무상 임대 등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출국 연장·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신규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 애로사항 청취 및 권장 도서와 함께 응원 메시지 전



완도군은 지난 5월 28일 군립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신규 공무원 20명이 소통하는 시간인 '행복 토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복 토크'는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코로나19로 행사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공무원과의 '행복 토크'는 최근 5년간 완도군에 2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면서 공직 사회가 젊어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행정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군정을 이끌어갈 신규 공무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

하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2023 전라남도 체육대회, 2024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용된 지 1년 5개월이 된 상하수도 사업소의 공무원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소그들이지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